

나주시, 365일 쉬 없는 영유아 돌봄 체계 구축한다

평일 외 주말·공휴일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 10월부터 운영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서 계획 공유 안심 보육환경 구축 논의

나주시가 부모의 긴급상황에 대비한 365일 쉬 없는 영유아 보육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나주시는 평일과 주말 언제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365일 쉬 없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365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인 '영유아 시설 지원 확대'로 안심 보육환경 조성' 정책 일환으로 도입된다. 서비스 대상은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 가정이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 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이후 부모의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오후 7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평일만 운영하는 도내 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달리 나주시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아이를 돌봐 준다.

시는 영유아 인구가 가장 많은 빛가람동 관내 어린이집 1개소를 선정(수탁)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7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832명을 대상으로 자녀 보육 정책 관련 설문 조사를 했다.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전체 응답자 63.3%(527명)가 '급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자녀를 맡길 곳이 없음'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자녀 양육에 가장 부족한 서비스 또한 '단기적·일시적 보육서비스'가 54.3%로 가장 높았으며 양육 상담 서비스(12.2%), 도서·장난감 대여(11.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0.3%) 등이 뒤를 이었다.



나주시는 최근 수탁을 희망하는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육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다.

365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 71.2%(580명)가 적극적인 이용 의사를 표했다.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보육 교사 전문성 확보'(32.7%),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23.1%),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19%), '운영시간 확대'(13.9%), '서비스 신청 간소화'(9.6%) 순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365일 시간제 보육사업 세부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서비스 월 이용 한도 시간, 자부담 비용, 이용 정원, 사전 예약 시스템 등을 구체화하고 확정되면 보도자료, 시청 누리집, SNS, 어린이집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최근엔 수탁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공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구축에 힘을 모아 가기로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365일 연중무휴 긴급보육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나주만의 특화된 보육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민선 8기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파크골프장 조성 준비 순조...용역 중간보고회

후보지 조사 분석 보고 등 논의

장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보고회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장성군의회 의원, 체육회,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파크골프는 나무로 된 골프채로 공을 쳐 잔디 위 홀컵(hole cup)에 넣는 운동이다. 신체적으로 큰 무리를 주지않아 고령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다.

장성군에는 황룡면 월평리 일원 9홀 규모 파크골프장과 9홀 파크골프연습장이 조성되어 있다.

민선8기 공약인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은 2025년까지 국비 포함 20억원을 투입해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참여율을 높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기존 파크골프장 및 신규 조성 후보지 조사 분석 보고와 향후 조성 방향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장성군의 존재 이유"임을 강조하면서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방향 설정과 기본구상안 마련 단계부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의회 의원, 체육회,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강진군, 휴대전화 영상 컬러링 축제 홍보 활용

3대 물놀이장 홍보 영상 송출

강진군이 휴대전화를 통해 홍보영상이 송출되는 '휴대전화 영상컬러링(V컬러링)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상과 음성을 함께 지원하는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상대방에게 강진군의 축제 등 홍보영상을 통화대기 시간에 보여준다.

기존 음원만 들려주던 서비스에서 영상이 가미됐다.

발신자는 영상 시청에 따른 별도의 데이터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전화가 연결될 때까지 영상을 시청하게 돼 강진 홍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신자의 휴대전화가 아이폰인 경우에는 음원만 들을 수 있다. 군은 현재 '강진군 3대 물놀이장'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8월에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리는 '하백(하백맥주) 축제' 홍보영상을, 9월에는 10월 13일



강진군 영상 컬러링

부터 시작되는 '강진만 갈대 축제' 관련 홍보 영상을 연이어 송출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강진군 누리집(홈페이지)의 '군민컬러링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강진군 영상컬러링' QR코드(사진)를 이용하면 된다. 영상 컬러링 이용 비용은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군 요양시설 16곳에

CCTV 설치...노인학대 예방

담양군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요양시설 입소자 안전을 위해 8월 말까지 요양시설 16곳에 CCTV를 설치한다.

담양군은 국가정책으로 일부 국비가 지원됐지만 전체 노인요양시설의 필수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 4000만원의 군 예산을 추가로 투입했다.

지난 5월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6월에 15개 시설에 208대를 지원했다. 군은 이어 8월 말까지 126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시설 노인인권지킴이 활동 등 어르신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

장성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

장성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성과

장성군이 '2023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55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364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쳤다.

장성군은 추후 직매장 2층에 농가 레스토랑과 청년 소통공간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 농업인과 군 행정이 뜻 모아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뿌듯하다"며 "농산물 판로 확보와 감소 농가 지원 활성화로 일류농업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장성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특히 정기적인 잔류농약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었으며 출하 농가를 조직화해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소비자 팸투어를 통해 장성 농산물의 우수성도 알렸다.

직매장을 찾은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난 6월 개장 1년만에 매출 88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장성군은 추후 직매장 2층에 농가 레스토랑과 청년 소통공간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 농업인과 군 행정이 뜻 모아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뿌듯하다"며 "농산물 판로 확보와 감소 농가 지원 활성화로 일류농업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장성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어업인들이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함평을 주포·손불면 일대 해안에 새꼬막 종패 50t을 살포하고 있다.

함평만 어족자원 회복 어린 새꼬막 50t 방류

함평군이 함평만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새꼬막 50t을 주포·손불면 해안가에 방류했다.

함평군은 새꼬막 성장 점검 결과 입식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여 꼬막 양식이 타 패류에 비해 함평만 내 어족자원 조성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해 군비 6000만원을 투입해 살포했다. 이번에 살포된 새꼬막 종패가 2년 뒤 성패로 성장해 판매될 경우 단

가가 높아 어촌계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오호석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장은 "날로 감소하는 수산자원 보호와 육성을 위해 해양별 특성에 적합한 우량 종패를 지속적으로 방류하겠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 향상 및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필리핀 실랑시와 우호교류 협약...농수축산·임산물 협력

시 대표단 정남진 물축제장 찾아

정남진 장흥 물축제장을 찾은 필리핀 실랑시 대표단이 장흥군과 우호 교류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성 장흥군수와 알스톤 케빈 A. 아나르나 실랑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흥군과 실랑시는 농·수·축산, 임산물 판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교육·문화·관광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도 협의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16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대표 행사인 살수대접, 지상 최대의 물싸움 등을 즐겼다.

필리핀 실랑시는 카비테주 동부 지역에 있으며, 인구 29만명인 도시이다.

농업, 제조업, 무역업이 발달했으며, 주로 재배되는 작물은 커피, 바나나, 코코넛, 아보카도 등이다.



김성(가운데) 장흥군수와 알스톤 케빈 A. 아나르나 필리핀 실랑시장이 지난 28일 우호 교류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실랑시와 교류협약을 계기로 두 지역이 상호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호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농가 경영개선 공모사업 대상자 모집

2개 사업 총 1억1500만원 지원

화순군이 농업인 경영 애로사항 해결 및 소득 증대를 위해 '2024년도 농가 경영개선사업' 공모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가 경영개선 사업은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과 '경영기록장 가장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은 작목별로 생산 기반을 갖춘 농가가 전남 최고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우수 경영모델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생산비 절감·유통개선·부가가치 향상 시설·장비 지원 등이 가능하며 개소당 사업비는 1억원(보조 80%·자부담 20%)이다.

경영기록장 가장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3년 이상 경영기록장 기장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한다. 개소당 사업비는 1천500만원(보조 80%·자부담 20%)이다.

신청 기한은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은 8월 3일, '경영기록장 가장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8월 9일로 화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단순 농업 생산에서 벗어나 농업인 경영체 육성으로 성공적인 농가 소득향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심 있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